

# 세계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요 패턴

- 홍 보 부 -

## 10년간 돼지고기 소비 증가 아시아 지역 5.05%로 최고

지난 12개월 동안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에 대한 원인의 대부분은 급속한 공급의 증가와 상대적인 수요 둔화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의 증가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지라도 전세계적인 돼지고기의 소비가 그렇게 강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한 소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소비경향을 분석해 볼 때 아주 분명하다. 즉 다시 말해 1973년 보다 1999년에 전세계 소비자들에 의해서 두 배나 많은 돼지고기가 소비 되었다. 비록 이 25년 동안에 전반적인 소비의 증가는 인구증가 때문이었다고 할 지라도 1인당 연간 평균 소비량은 겨우 10kg 정도에서 기록적인 수치인 14kg으로 증가 했으며, 이것은 다른 고기의 소비 증가율을 웃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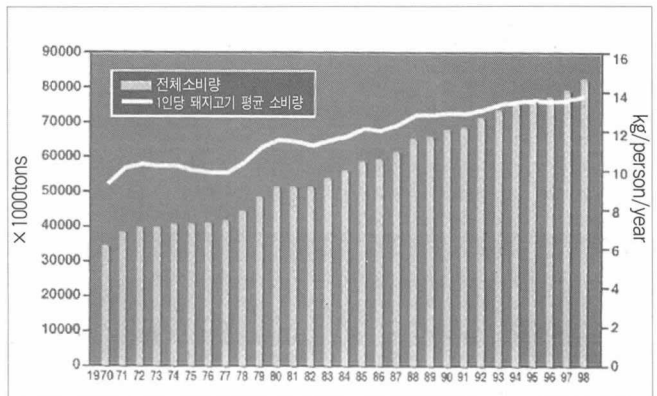
〈그림1〉은 1970년 이후로 연간 1인당 소비되어지는 돼지고기의 양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향추세와 함께 돼지고기 총 소비의 꾸준한 상승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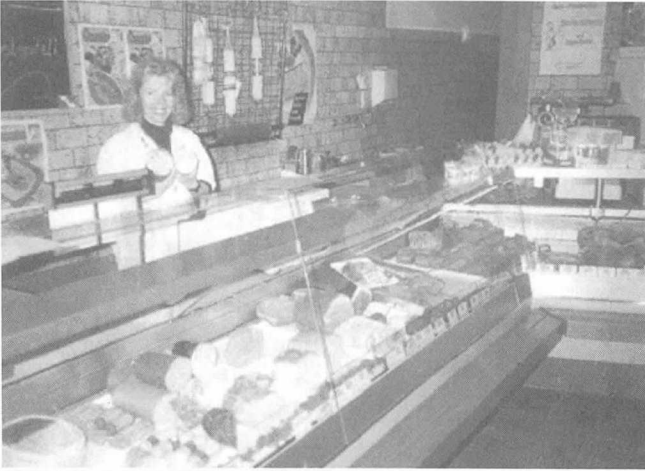
## 전세계 육류 시장의 39% 차지, 소고기는 26.5%로 떨어져

-가금류는 17%→28%로 증가

돼지고기의 꾸준한 인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 이후로 돼지고기는 전세계 육류시장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소비의 측면에서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평균 소비량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품은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돼지고기의 꾸준한 인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 이후로 돼지고기는 전세계 육류시장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볼 때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은 39%쯤 되었다. 이 비율은 여전히 1998년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39%에서 26.5%로 떨어졌으며, 가금류는 17%에서 28%로 증가 되었다.

오늘날 평균 1인당 소비되어지는 돼지고기의 양 14.3kg은 가금류의 10.4kg 과 쇠고기의

9.9kg과 비교되어진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단지 도체중만 가지고 측정된 것이다.

돼지고기에 있어서 쇠고기와 동등한 소매 무게(정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략 23%가 공제되어야 한다. 도체에서 식용으로 취해지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과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고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도축된 양과 식용으로 섭취되는 양 사이의 대조에 대한 한 예를 들어 보면, 독일연방 식품관리국은 작년 독일에서의 돼지고기 공급이 1인당 도축무게로 55.9kg 이었지만 실제 소비되는 수치는 40.3kg임이 판명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축무게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단 하나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수치로 남아있다.

1990년대 말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어느 곳이 가장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UN의 FAO와 미국의 농무성에 의해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자료를 추출해 왔다. <표1>은 전적으로 중국에서 소비되어지는 방대한 돼지고기의 양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돼지고기 소비가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표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돼지고기 소비량 상위 5개국

국가명		1986	1991	1996	1997	1998
중국	(1)*	17767	24255	31390	34506	36368
	(2)*	16.8	21.1	25.8	28.1	29.4
일본	(1)	1860	2083	2079	2080	2075
	(2)	15.3	16.8	16.5	16.5	16.4
베트남	(1)	619	691	1046	1084	1129
	(2)	10.1	10.1	13.9	14.0	14.4
필리핀	(1)	477	695	905	950	995
	(2)	8.0	10.6	11.9	12.2	12.5
한국	(1)	321	644	867	940	950
	(2)	16.5	14.7	18.9	20.3	20.3

〈표2〉 유럽에서 돼지고기 소비량 상위 5개국

국가명		1986	1991	1996	1997	1998
독일	(1)*	4340	3880	4483	4368	4630
	(2)*	55.6	48.5	54.7	53.2	56.4
스페인	(1)	1231	1937	2201	2259	2290
	(2)	31.8	49.6	56.3	57.8	58.5
프랑스	(1)	1871	2110	2031	2067	2115
	(2)	33.8	37.0	34.8	35.3	36.0
이태리	(1)	1608	1812	2007	1980	2010
	(2)	28.1	31.4	35.3	34.8	35.4
러시아	(1)	3542	3653	2149	2069	1879
	(2)	22.5	24.6	14.5	14.0	12.8

〈표3〉 아메리카 대륙에서 돼지고기 소비량 상위 5개국

국가명		1986	1991	1996	1997	1998
미국	(1)*	6868	7438	7619	7629	8304
	(2)*	28.4	29.4	28.7	28.5	30.7
브라질	(1)	855	1090	1554	1487	1585
	(2)	6.1	7.0	9.4	8.9	9.3
멕시코	(1)	911	859	914	980	997
	(2)	11.3	9.9	9.6	10.1	10.1
캐나다	(1)	844	875	897	893	951
	(2)	33.3	32.4	29.9	29.4	31.0
칠레	(1)	75	121	184	194	210
	(2)	6.2	9.1	12.8	13.1	13.2

〈표4〉 아프리카에서 돼지고기 소비량 상위 5개국

국가명		1986	1991	1996	1997	1998
나이지리아	(1)*	75	160	284	287	315
	(2)*	0.9	1.6	2.5	2.4	2.7
남아프리카	(1)	120	124	136	140	142
	(2)	3.5	3.3	3.2	3.3	3.4
마다가스카르	(1)	38	47	53	54	54
	(2)	3.5	3.6	3.4	3.4	3.3
우간다	(1)	13	46	51	51	53
	(2)	0.8	2.7	2.5	2.4	2.5
콩고	(1)	32	40	44	43	44
	(2)	1.0	1.0	0.9	0.8	0.8

(1)\* = 소비량 × 1,000톤, (2) = 1인당 연간 소비량(kg)

다. 최근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 더 위축된 돼지고기 수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1986년부터 96년까지의 이

들 지역의 주목할 만한 소비증가 이후로 소비량 상위 5개국의 평균 연간 1인당 소비량을 볼 때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보다는 오히려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유럽에서 돼지고기 소비 상위량 5개 국가들은 러시아에서의 명백한 소비둔화와는 전혀 별개로 거의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는 성숙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가지 요소는 유럽의 가격수준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유럽시장의 이러한 안정을 통해 상위 5개국의 유럽 국가들은 1999년에 지역적으로 초과 생산된 돈육을 거의 흡수할 수 없었다. 그리고 러시아로의 수출의 기회는 러시아의 경기 침체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았다.

〈표3〉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소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부터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남아메리카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양극단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가 북아메리카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공급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두나라에 1인당 소비 증가율이 제각기 1998년에 7~8%와 5~6%의 상

당한 증가를 기록했는지를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표4〉는 현재 아프리카의 돼지고기 소비 상위

5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 소비국인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1인당 소비되어지는 평균량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빈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출발해서 1986년 이후로 한 나라는 수요에 있어서 200~400%의 의미 심장한 증가를 기록해 왔다.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이 계산 수치는 1990년대 10년 동안 지금까지 연간 평균 4.12%의 소비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역들 가운데 단지 아시아 태평

양 지역만이 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 평균 증가율은 5.05%로 나타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은 연간 3.87%라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로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소비증가는 평균 연간 1.89%로 가장 느려왔다.

전세계 평균은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연평균 2.44%로 극도로 움직임이 작게 머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IG INTERNATIONAL 99년 6월호> **양돈**



## 정부 전력 신기술지정 1호

# 최첨단 전기안전 절전제어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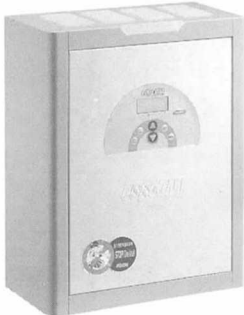
### ◎ 인증사항

- 정부(산업자원부)사용권고(관보발송)한국 전력 기술인협회 사용권고(전력협)
- 품질보증업체 지정서 'Q'마크 획득·벤처기업 확인서 획득(중소기업청)
- 공인기관 시험완료(한국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 언론보도 극찬(신문·방송)
-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 수출상담/수출의양서 체결함

**양돈농가전기 위험  
완전 해결!**

### ◎ 주요 설치·설계 현황

- 관공서 : 서울특별시 정부(조달청)      ● 공공기관 : 서울지하철공사외      ● 교육기관 : 서울성동교육청외
- 일반업체 : 현대전자, 삼성중공업, LG, 이수세라믹외 상기사례는 제1세대 ESS(I)장치로써 1998. 3. 31일 현재 238개 업체가 설치하였으며 1998. 6월 이후 납품 설치되는 ESS(II) ESSCOM 장치는 정부전력 신기술에 의한 2세대3세대를 구현함.



### ESSCOM 신기술 7가지

1. 전기위험 안녕!
2. 전력의 효율적 이용!
3. 전기 제품 및 조명등의 수명 3배 연장!
4. 문제 원인 한눈에 확인!
5. 최첨단 신기술 응용!
6. 자기진단 및 보호기능!
7. Y2K문제 근원적 해결!

### 제품 구입 문의처

**미래에스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대오빌딩 14층)

### 본사전화 (02)780-3226

FAX(02)780-0479    휴대폰(011)214-2718  
담당 : 최 주

기종	모델	
단상 (220V)	6KVA~25KVA	ESSCOM Home/BIZ
3상 (380V)	9KVA~75KVA	ESSCOM Pro

전기안전의 절대강자 "에스컴" 이 귀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